

# “3단계 개통 후 지옥철 극심 ... 완전 공영화 이뤄야”

## 시민단체, 9호선 대책마련 요구

6량 일반열차 2편성 투입했지만 개통전 대비 혼잡도 24%p 올라 시민 안전, 노동환경 개선 위해 8량열차·근무인력충원 등 요구

“혼잡도는 여전하다! 시민참여 실사하라!”, “서울시는 민간위탁 철화하고 공영화에 앞장서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이후에도 혼잡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오전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혼잡도를 개선하고 2, 3단계 구간의 민간위탁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9호선 혼잡도와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9호선 2, 3단계 민간위탁 중단 및 완전 공영화 ▲8량 열차 도입 ▲근무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매일 출퇴근길에 지옥철을 경험하고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오전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9호선 혼잡도를 개선하고 2, 3단계 구간의 민간위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김현정 기자

있다”며 “지난해 12월 개통한 3단계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었지만 열차 증편이 부족해 시민이 느끼는 혼잡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9호선 3단계 개통 전인 2018년 1월 기준으로 급행열차의 혼잡도는 162%, 일반열차의 혼잡도는 83%였다. 9호선 3단계 구간(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급행열차 혼잡도는 147%로, 일반열차는 112%로 나타났다. 급행열차 혼잡도는 15%p 줄었지만 일반열차 혼잡도는 29%p 상승했다.

시는 일반열차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3월 6량 일반열차 2편성을 투입

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혼잡도는 급행열차 156%, 일반열차 107%로 조사됐다. 9호선 3단계 개통 전과 비교해 급행열차는 6%p 소폭 감소했지만 일반열차는 24%p나 증가했다.

대책위는 열차 혼잡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지하철 9호선 2, 3단계 구간의 민간위탁을 중단해 완전한 공영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민간위탁의 철화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고용형태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며 “혼잡도가 생기고 시민들의 안전에 불안이 생기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운영체계의 단순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장호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공영화를 통한 공공성 회복”이라는 말의 뜻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라는 얘기”라며 “9호선 지하철을 8량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9호선 김포공항역을 잇는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면 9호선의 혼잡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의 일일 이용객수를 8~9만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9호선 열차를 8량으로 늘리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9호선 1~2단계 구간에는 8량까지 도입할 수 있지만 3단계는 6량이 최대”라며 “감사원에서 9호선 기본계획에는 6량으로 나와 있는데 왜 8량으로 짓냐”며 과투자라고 지적해 3단계 구간은 최대 6량까지 운행 가능하도록 지어졌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운영시간, 유지보수 점검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공사 가능한 시간이 3시간이다. 현실적으로 8량 도입은 어렵다”며 “대신 열차를 증차해 기존 3.3~5분의 배차 간격을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혼잡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9호선 급행열차 16편성(6량), 일반열차 19편성(9편성 6량, 10편성 4량) 등 총 37편성의 열차를 운행 중이다. 여기에 3편성을 추가해 연말까지 40편성을 6량화할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2, 3단계 구간에서 근무 중인 신상환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장은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개선된 게 전혀 없다”며 “야간시간대 역사 안전을 책임지는 고객센터원은 단 1명이다. 기관사들은 코피를 쏟아가며 최장 7시간씩 열차를 운행하고 현장 기술직은 2인 1조가 되지 못해 여러 개 부서를 하나로 합치는 통섭형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휴가조차도 1년 내내 못쓰는 노동자가 많다”며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 지부장은 “서울시는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노사정 테이블을 만들어 지금 당장이라도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단기 민간위탁이라는 민영화된 구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9호선 2, 3단계의 인력충원 문제는 노사간의 일이다”며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박원순, 세계 도시시장에 ‘스마트 서울’ 알린다

(서울시장)

##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서 올빼미버스·공유주차제 등 소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서울’의 다양한 혁신정책을 80여개 120여명의 도시 시장, 정부·국제기구 관계자 등에게 소개한다.

서울시는 중남미 순방 중인 박 시장이 11일 오후 1시 30분(현지시간)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열리는 ‘2019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WCS Mayors Forum)’에 참석해 ‘신기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서울’을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밝혔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전 세계 도시 시장과 정부·기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자리다.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만들기센터(CLC)와 도시재개발청(URA) 주관으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돼왔다.

올해는 ‘높은 신뢰도시 구축을 통한



박원순 시장. /손진영 기자 son@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10~12일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열린다. 의장인 로렌스 윈 싱가포르 국가개발부장관, 아니스 라시드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모신 모하메드 알 셰이크 무스카트 시장, 베티 아몽기 우간다 토지부장관 등 총 120여명이 참석한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철학을 토대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로 끊임없이 실험과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올빼미버스, 다람쥐버스, IoT 공유주차제, 지능형 화재감지시스템,

디지털시민시장 등 소개한다.

박 시장은 기초발표 이후 세션 주제인 ‘사회적·제도적 신뢰강화’를 화두로 도시 대표들과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세션에서는 박 시장에 이어 트리 리즈 마하리니 수라바야 시장, 바트 드 베버 앤트워프 시장도 발표자로 나선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2019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첫번째 일정으로 ‘리관유 세계도시상’ 역대 수상도시 대표단과 조찬 간담회를 갖는다.

‘리관유 세계도시상(Lee Kuan Yew World City Prize)’은 살기 좋고 활기차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인 도시에게 주는 상이다. 도시행정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로렌스 윈 싱가포르 국가개발부장관이 주최하는 이날 간담회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각 도시들이 추진 중인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박원순 시장은 리관유 세계도시상 수상 이후 본격화된 시민 중심 서울형 도시재생 사례(세운상가, 경춘선 숲길, 서울책보고 등)를 공유한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폐수배출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

반월시화 산단·수원·화성 등 일대

반월·시화 산업단지과 수원·화성·오산지역 주요 하천 일대에서 대기·수질 관련법을 위반한 폐수배출사업장 14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열흘 간 반월시화 산단에서 염색 도금 피혁 등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업장 180개소와 수원, 화성, 오산지역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소 72개소 등 총 2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6개 위반사항에 대해 총 1,60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중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2개소에

대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행위는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1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대기방지시설 부대기류의 고장훼손 방치 5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 반월산단 소재 A섬유염색가공업체는 허가당시보다 특정유해물질이 30% 이상 배출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2배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다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돈의문박물관마을’ 새단장... 방문객 경증

서울시 5~6월에 11만명 방문

서울시는 역사·문화공간인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5~6월 11만명이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개관한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4월 리모델링을 실시, ‘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라는 콘셉트로 다시 문을 열었다. 살아있는 박물관마을이라는 정체성을 살려 일년 내내 전시, 행사, 체험이 펼쳐지는 시민참여형 공간으로 운영 중이라고 시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을 행사 모습. /서울시

전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1만1144명이 박물관마을을 다녀갔다. /김현정 기자

# 강남에 저이용 시설 허물고 공공주택 짓는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

서울강남한복판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폐지

부지(강남구 언주로 563)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간 스포츠센터(스포월드)가 있던

부지에 민간개발사업을 통해 일반분양주택 163세대, 공공임대주택 22세대를 노인·유아문화센터 등 문화시설과 함께 조성하는 내용이다.

해당 부지는 도시 계획상 체육시설로만 활용하게 돼 있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현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확정되면서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게됐다. /김현정 기자